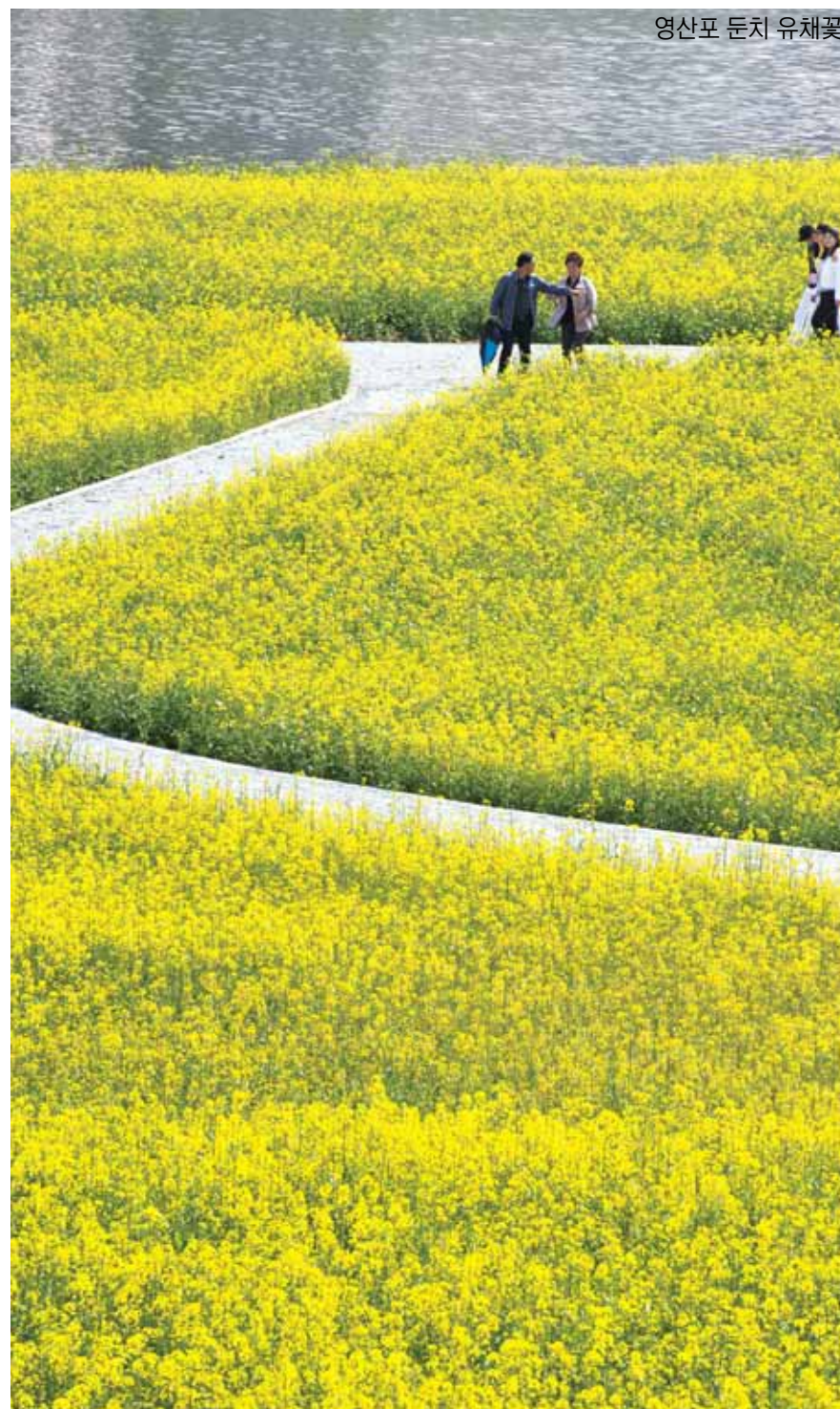


역사·자연·품격이 있는 ‘관광 나주’ 시대 열린다



황포돛배



영산포 둔치 유채꽃

혁신도시 조성으로 교통 편리

광주공항과 순환버스 운영 협약

팸투어 열고 새 관광상품 개발

왕건과 오씨 처녀의 아련한 사랑 이야기가 깃든 나주가 새로운 관광 시대를 열고 있다. 역사와 풍부한 자연환경, 지역 축제를 결합한 이색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유명 여행 잡지에 잇따라 소개되는 등 ‘나주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나주에 들어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이주 기관 직원들에게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혁신도시 시너지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주 기관 직원들에게 남도의 맛과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이들을 통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공항과 전략적 제휴=나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코레일이 발행한 ‘KTX 매거진’5월호에 나주여행 특집이 소개됐고,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여행전문잡지 ‘콘데 나스 트래블러’(Conde Nast Traveller)에도 나주를 전남의 슬로 라이프 여행지로 취재, 중국어판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나주가 새로운 관광시대를 열게 된 것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나주 일대 도로 망이 확충됐기 때문이다. 주변 SOC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나주시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7일 나주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와 지난 2일 나주시장실에서 권순구 지사장과 임성훈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과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광주공항내 혁신도시 순환버스 전용 정류장 설치에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광주공항→혁신도시→영산포 터미널을 순환 운행하는 시내버스(1160번)를 1일 36회 늘렸다.

관광객이 나주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항공과 순환 버스를 연결한 셈이다.

또 나주읍성, 뱃길복원, 테마파크 등 나주의 대

표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공간도 만들기로 했다.

◇맞춤형 관광지 발굴=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여행사에 홍보하는 작업도 활발하다.

나주시는 최근 수도권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관광정책 자문회의를 열었다. 관광객의 요구 등을 듣고, 맞춤형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시는 지난달 24일과 25일 대표 관광상품 개발과 음성길 도보여행 준비를 위해 국내 3개 여행사에 기획팀장들과 팸 투어도 진행했다.

팸 투어에서 기획팀장들은 “나주의 주요 관광지는 가족단위 패키지 상품으로, 음성길 도보여행은 자유여행 및 수학여행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대표 길거리 음식 및 숙박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관광지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보완된다면 상품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자문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관광상품은 ▲국립 나주박물관 장례문화 및 죽음체험 프로그램 ▲목사고을시장 ‘김치체험+장보기 5000원 상품권 구성’으로 직거래 장보기 ▲흥어축제 ‘유채꽃과 흥어축제’로 변경해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 황포돛배 체험은 육성 해설과 통선 및 배타는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자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상테마파크는 수학여행지로 ▲천연염색 박물관은 아이들 체험장소로 ▲나주향교는 학생, 가족단위 예절프로그램 진행 등 나주의 현실에 맞는 관광상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 나주역세권 개발 및 음성내 야간 조명 필요 ▲수학여행 유치를 위한 학교장, 학년부장 팸투어 필요 ▲음성내 인력거나 자전거는 시범적으로 운영 등도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팀장들에 조언을 나주관광 정책을 펴나가는데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kwangju.co.kr

/순영철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 관광 제대로 하려면

국립 나주박물관



1박 2일 추천 관광 코스

불회사→운암사→다도도래 한옥마을→산포수목원→승춘보→금성관→나주목민화관→나주목사 내아→서성문→나주향교→정려사→동점문→완사천→영산포등대→영모정→천연염색박물관→영상테마파크→황포돛배 체험→반남고분군

맞춤형 관광코스

- 수학여행지-영상테마파크
- 체험여행지-천연염색박물관
- 예절여행지-나주향교
- 가족여행지-음성길 도보여행

새로운 관광상품

- 국립나주박물관-장례문화 및 죽음체험 프로그램
- 목사고을시장-김치체험+5000원 상품권으로 직거래 장보기
- 유채꽃과 흥어축제 연계

나주배 수출전문단지 본격 육성

미국·대만·국내 시장 차별화 전략적 마케팅

수출시장의 선호도에 맞춰 배를 생산하는 나주배 수출전문단지가 본격적으로 육성된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국내산 과일 소비 정제에 따른 배 가격 하락·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나주배 수출전문단지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배 원예농협·전남대 배수출연구사업단과 산·관·협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6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있는 전문단지를 더욱 확대한다.

수출전문단지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선호하는 중소과(中小果) 위주의 배를 맞춤 생산하며 나주배 원예농협에서 전량 수탁 판매한다. 지난해에도 수출전문단지에서 생산된 배 중 1681t의 배를 수출해 나주배 원예농협에서 수출한 물량(2503t)의 67%를 차지했다.

나주시는 최근 세부 사업 추진지침을 확정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배의 미국 수출을 관리하는 나주배 원예농협에 관련 사업 추진을 맡겼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기준에 적합한 농가와 대상지를 선정하고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와 컨설팅에 나선다.

배 재배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 농가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나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민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미국, 대만, 국내시장을 차별화해 해당 지역에 맞는 상품의 품위에 맞는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전국 배 생산량의 23%인 연간 6만6101t의 배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의 배 주산지이다.

/나주=순영철기자 yacson@kwangju.co.kr



옛 세무서 자리에 중부 노인복지관 완공

나주시 중부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로 본격 활용될 중부 노인복지관(사진)이 완공됐다.

7일 나주시는 “지난 2일 설북동 옛 세무서 자리에서 임성훈 나주시장과 지역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노인복지관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부 노인복지관은 2만5000㎡의 부지에 총 공사비 57억4700만원을 들여 지하1층·지상 3층(건축면적 2208㎡) 규모로 건립됐다.

중부 노인복지관 1층에는 물리치료실과 식당, 자원봉사자실, 남·녀 사랑방, 2개의 프로그램실이, 2층에는 실버카페, 탁구장, 당구장, 4개의 프로그램실, 헬스장과 남·녀 샤워실, 노래연습장(3실)이 3층에는 직원 사무실과 관장실, 27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이 설치돼 있다.

또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이트볼장은 복지관 후면에 조성해 야외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중부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 누구나 편의시설 이용과 각종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식이 무료다.

한편 나주시지역 노인인구는 4월말 현재 2만2066명으로, 전체 인구 8만9598명의 25%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복지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5월19일까지 한정판매